

IV. 日本 動靜

經濟特區의 優待
策, 特權은 서서히
폐지될 것임

中國, 經濟特區 철폐 가능성

○ 優待措置로 不平等 심화

- 當初 經濟特區 설치 목적은 일정 지역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海外의 先進技術을 흡수하여 이를 전국에 전파하는 것이었으나, 전파 창구로서 特區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
- 特區內에서 각종 우대를 받고있는 기업과 特區 以外 지역의 기업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역간의 심각한 所得 格差를 초래하였음

○ 地域政策에서 産業政策으로 전환

- 向後 特區 우대의 地域政策이 폐지되고 중공업 중심의 産業政策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짐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0.17)

골드칼라 時代의
到來로 새로운 人
材 육성이 급선무

골드칼라의 育成 시급

○ 素材型 産業의 고용 흡수력 저하

- 向後 産業의 성패는 국제 경쟁력의 有無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素材型 産業은 地盤이 급격히 沈滯될 것임
- 장기적으로 有望産業은 機械관련 製造業, 通信, 一部の 서비스業種 정도이며 대부분의 産業은 고용 흡수력 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임

○ 골드칼라 시대 到來

-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의 地盤은 沈滯되고 「골드칼라」의 시대가 到來할 것임
 - 골드칼라란 情報 테크놀로지를 구사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, 또는 그와 같은 인재를 활용할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함
- 企業內에 국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할 人材의 육성이 급선무임
 - 일본 기업의 強點인 組織力과 골드칼라가 결합되면 理想的일 것임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0.16)

CIA의 經濟 諜報 活動은 美日間 에 심각한 査察 을 일으키고 있음

심각한 CIA의 經濟 諜報 活動

○ 經濟分野에 새로운 活路 모색

- 冷戰體制 붕괴후 豫算과 人員 削減에 시달리던 CIA 는 經濟分野의 정보 수집으로 새로운 活路를 모색 하고 있음
- CIA 情報를 교섭에 이용하려고 하는 美통상대표부 에 대해 美국무성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음
 - 短期的 交渉의 성공만을 추구하다보면 長期的으로 二國間 關係가 損傷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

○ 對日 盜聽으로 査察

- 今年 6월까지의 美日經濟協議에서 CIA가 日本政府 高官의 轉화를 도청한 사건이 있었음
 - 美국무성은 조사를 약속했지만 통상대표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음
- 일본측은 사건에 대한 불쾌감 뿐만아니라 對美 不信感을 감추지 않고 있음
 - 11월의 APEC 오호사카會議과 곧이은 美日首腦會談 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

(「朝日新聞」, 10.19)

合邦條約을 일 본은 국제법상 유효로, 한국은 강제성을 이유로 무효 주장

再論되는 韓日 合邦條約의 評價

○ 歷史認識의 隔差

- 日本政府는 韓日 合邦條約이 불평등한 條約이지만 國際法 등을 근거로 法的으로는 有效하다는 입장임
- 韓國側은 條約締結의 強制성을 이유로 條約 자체가 無效라고 주장하고 있음

○ 양보할 수 없는 論爭

- 日本政府는 條約의 無效性까지는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
 - 合邦條約이 無效로 인정되면 日本은 不法으로 한국을 지배한 것이되며 賠償責任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임

(「朝日新聞」, 10.19)